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1756~1801)



1756년 전주 초남이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는 전라도 최초의 신자이다. 그는 교리를 배우며 진리를 깨달았고 빈부귀천 따로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1786년 봄,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하여 지도층 신자들이 모임을 갖고 임의로 성직자를 임명하였을 때, 유 아우구스티노도 전라도 지역의 신부로 임명되어 성무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이러한 행위가 독성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단하였다.

박해가 일어나자 유 아우구스티노는 가장 먼저 체포되었다. 이어 그는 포도청과 형조, 의금부를 차례로 거치면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박해자들은 선교사와 서양 선박 요청 계획의 주동자로 유항검 아우구스티노를 지목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던 그는 결코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박해자들은 결국 유 아우구스티노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은 그에게 모반죄를 적용하여 능지처참을 하도록 하였고, 유 아우구스티노는 전주로 옮겨져 10월 24일 남문 밖에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사순 제5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예제 37,12ㄹ-14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7ㄴㄷ)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 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로마 8,8-11

복음 환호송 요한 11,25.26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음 요한 11,1-45 (또는 11,3-7.17.20-27.33ㄴ-45)

영성체송 요한 11,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분이 누구시기에?”(마르 4,41) 이것이 마르코 복음서를 읽으면서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1장 1절에서 이미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 놓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기 위해서 저자는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 오실 분이 누구신지를 말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회당에서는 율법 학자들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고을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여기서 알아보았다면 이미 복음이 끝났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불리던 마귀 떼를 몰아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5,17) 나자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던 이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6,4)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일이 마음에 걸린 듯, 헤로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6,14),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나 다른 예언자라고도 생각합니다(8,28). 마르코 복음 전반부에서는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셈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8,29)라고 대답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도 당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한편으로 베드로는 분명히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답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부터, 그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은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 알아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뭔가 위로를 느낍니다. 마르코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그 많은 토론을 다 거치지 않아도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지라도, 감히 그분을 다 안다고 나서지 말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질문을 던지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8,29)라고 물으십니다. 🌐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교회헌장」 제34 항

「교회헌장」 제4장의 제34항~36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회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1964년 제3회기에 「교회헌장」의 최종안 작성 단계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의회는 제1회기에 제출된 「교회헌장」의 초안에 담기지 않은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가르침을 새로이 마련하여, 교회 구성원의 각 신분에 대한 장(章)들에 우선해서 제2장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대한 제2장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공의회는 제4장에서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들이 그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사제직은 제2장의 10항과 11항에서 다룬 ‘하느님 백성의 보편 사제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곧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히브 5,5 참조)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히브 10,10 참조), 그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묵시 1,6 참조). 이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유로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어, 그들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께 신령한 제사를 바칩니다(1베드 2,5.9 참조). 공의회는 이러한 신약성경의 인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제시며 성령의 도유를 받은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 공의회는 제4장에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증거와 봉사를 계속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그분의 성령으로 생명

을 얻어 그분이 원하시는 좋은 일과 완전한 일을 하도록 재촉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평신도들을 결합하여, 그들에게 사제직의 일부를 맡기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되어, 자신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평신도는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이 된다. 미사 중 강론 시간에 사제의 질문에 답하는 어린이들

평신도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1베드 2,5 참조)이 됩니다. 일상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모든 행위 안에 있는 이 영적 제물은 성찬례 거행 때 주님의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됩니다. 동시에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은 어디서나 거룩한 경배자로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봉헌되고 봉헌함으로써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

어린 '작가들'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 양주를 지나면 드디어 동두천을 만나게 됩니다. 소요산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꿈을 꾸는 도시, 동두천에는 8만 6천 명 정도의 시민들과 4천 5백 명 정도의 등록외국인들, 그리고 6백 명 정도의 난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두천은 한국에서 난민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출신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백 명 정도의 난민들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이,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학교에 다니며 자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난민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이지리아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내 피부색에 대해 수군거릴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되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난민 청소년들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의 꿈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자신의 꿈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오려 붙인 작은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앉아 작업하는 것도 보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꿈을 한 편의 시로 담아 낸 한 여학생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저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 시가 너의 꿈이니?"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쓸쓸한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도 남는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여학생은 말했습니다. "멋진 남자 친구가 꼭 생길거예요." 제가 아는 그 집은 밀린 월세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어려움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다른 또래들처럼 '멋진 남자 친구'에 대한 소망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난민 청소년들을 도우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봉사자들과 난민 청소년들이 1년 정도 붓글씨 수업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청소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월에 작은 전시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떠들고 장난을 치며 선생님을 난감하게 하기도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장난꾸러기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한 '작가'였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이 담고 있는 뜻을 설명하는 모습은 놀랄 만큼 진지하고 점잖았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인 동두천 작가님들의 작품 글귀들입니다.

"마음 나누기: 네가 슬프면 나도 울고 싶고 니가 기쁘면 나도 신나는 것", "감사: 엄마가 고맙다고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덕질: 덕질은 내 삶이자 취미이자 행복이다", "사랑: 꽃을 꺾는 것 대신에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 "희망: 굶는 아이들이 없는 것, 그걸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나는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특별하다", "정성: 정성이란 온 힘을 다하려는 예쁜 마음", "사람: 피부는 겉이고 존재인 본질이다. 나는 색이 아니다. 한 사람이다." 🎨

미사 · 피정 ▶▶

사순특강 - 성가, 음악 피정

일시: 3/28(토) 19시
장소: 신원동 성당
주제: 주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강사: 최준익 막시모(생활성가 가수)
문의: 02-381-3939

평내 성당 떼제미사

떼제곡으로 봉헌하는 미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8시 떼제미사
장소: 평내 성당

부활 반나절 피정

일시: 4/11(토) 15시~20시
대상: 35세 이하 미혼여성
참가비: 2만원
문의: 010-4882-9674(선한목자예수수녀회)

자연과 함께 하는 사제, 수도자 피정

일시: 7/13(월)~22(수)
장소: 제주 엠마오 연수원
주제: 자연과 함께 하는 엠마오의 길
강사: 최승정 신부
문의: 010-6462-0410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첫토 성모신심미사

일시: 4/4(토) 9:20~1130, 10:30 미사
장소: 의정부 신흥로261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전례음악과 영적치유

1차: 4/8(수) 15시~9(목) 13시
2차: 4/15(수) 15시~16(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형성센터
회비: 12만원, iM뱅크 504-10-102896-6(재)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강사: 최호영 신부
문의: 010-6791-0071(문자)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성경완독: 4/17(금)~25(토), 6/19(금)~27(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서울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3일 침묵피정: 4/10(금)~12(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3/24 이상기 회장, 3/31 원희연 회장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주일) 14시
회비: 2만원 (1박 3식, 청소년 무료)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운행(초지원역,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 순례: 3/27(금)~29(주일), 5/9(토)~11(월)
5/15(금)~17(주일), 6/19(금)~21(주일)
추라도 성지순례: 5/3(주일)~6(수), 5/29(금)~6/1(월)
6/4(목)~7(주일), 6/12(금)~14(주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암환자 무료 피정

참가자격: 거동이 가능한 암환자
장소: 강화도 마넬센터
피정기간: 3박4일(월~목)
신청 및 문의: 010-3355-1946 마넬암재단

제주 '푸른곰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주교와 함께하는 섬, 성지순례, 말씀초대
일시: 4/11~13, 4/28~30, 5/23~5/25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집(주최: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구반장, 사목위원)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섬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추라도 성지순례: 4/11(토)~14(화),
5/16(토)~19(화), 5/31(주일)~6/3(수)
엠마오 떠나는 4월 자연순례: 4/6(월)~8(수),
4/7(화)~9(목), 4/16(목)~18(토),
4/20(월)~22(수), 4/24(금)~26(주일),
4/28(화)~30(목)(추라도포함)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5지구 영성피정

일시: 3/23(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강의와 안수)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예수회)
문의: 010-8917-0090

성주간 한마음 다락방 피정 19기

초기 교회 공동체 체험을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피정
일시: 3/30(월)~31(화)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피정비: 10만원(1박 3식, 식대포함)
접수: 단체 및 개인 가능(30명 선착순)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3/27(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
강사: 현진섭 바로톨로메오 신부(꽃동네)
문의: 010-2127-0032

교육 · 모집 ▶▶

대화동 장애인 주일학교 교사/봉사자 모집

발달장애인 미사, 교리, 행사 진행/협조
일시: 매주(토) 14:30~17시
문의: 010-8886-1301

시스띠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연습: 매주(화) 19시, 아람누리(정발산)
문의: 010-9842-8818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추가 모집: 3/31(화)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4/6(월~토)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쿠나스오르간연구소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교육원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4/13(월)~24(금)
전형일: 5/15(금) 최양업홀
문의: 02-740-9876, songsin.catholic.ac.kr/music

2026 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일시: 4/8(수)~6/11(목) (※ 3/23부터 선착순 접수)
장소: 서울대교구 교구청 및 영성센터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문학
접수: 문화학교 홈페이지 culture.catholic.or.kr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일시: 4/24(금) 19:30~21:30
 주제: 우리 아이의 사회성, 영성을 키우는 교회 활용법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접수: 4/17(금)까지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템나음악원: 매주(금) 11시
 문의: 010-9842-8818

2026년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채용

모집: 영양조리반 / 업무: 전처리, 조리
 근무: 8:30~17:30, 주5일(변동근무)
 문의: 031-840-0018(내선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피에타스 가톨릭시니어싱어즈(알토, 베이스) 단원 모집

현재 성가대 활동중이거나, 경험 있는 교우
 교구활동 및 음악미사 봉헌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성심집 공동생활가정 입소어르신 모집

일시: 3/22(주일)
 장소: 운정역 근처(파주시 하우고개길 425)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어르신
 운영: 031-945-5036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이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의정부교구 가톨릭국악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30, 일산 성당
 활동: 의정부교구 신년하례미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회 및 미사외 교구 행사
 문의: 010-4661-4192 단장

[생명위원회] 어른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일시: 4/9(목)~6/11(목) 20시~21:30
 강의방식: 온라인(zoom)
 대상: 행복한 부부생활 및 자연주거법에 관심 있는 자
 회비: 부부 8만원, 개인 5만원
 신청: 홈페이지 forlife.or.kr
 문의: 02-727-2351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한티 가는 길 - 도보순례

일시: 3/26(목)~28(토), 4/16(목)~18(토),
 5/21(목)~23(토), 6/18(목)~20(토),
 9/10(목)~12(토), 10/7(수)~10(토),
 11/12(목)~14(토)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강사: 류 에프렘 수사
 회비: 30만원, 3박4일(40만원)
 문의: 010-6791-0071(문자)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성프란치스코 선종800주년 희년, 청년 이태리 성지순례

일시: 7/20(월)~31(금)(8/1(토)도착)
 장소: 로마, 아시시, 라베르나, 그렉치오, 피렌체 등
 주제: 프란치스코에게 길을 묻다
 문의: sfmayp@gmail.com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12(화)~22(금) 동부유럽 4국(540만원)
 6/8(월)~19(금) 성모발현지(555만원)
 6/23(화)~7/3(금) 이탈리아(545만원)
 7/3(금)~13(월) 조지아, 아르메니아(499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4/21(화)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12일, 575만원, KE)
 5/11(월) 나가사키 순례(4일, 149만원)
 5/12(화) 산티아고 도보순례(10일, 495만원, KE)
 5/19(화) 이탈리아 돌로미티순례(11일, 649만원)
 6/1(월)프랑스일주(12일, 580만원)
 6/4(목) 코카서스2국 (10일, 425만원)
 6/22(월) 발칸, 메주고리에순례(11일, 42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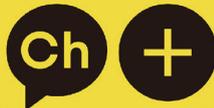
6/9(화) 조지아, 아르메니아(10일 450만원)
 6/23(화)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5일 160만원)
 장춘, 길림, 이도백하, 백두산, 용정, 연길,도문
 7/7(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60만원)
 7/16(목) 나가사키 성지(4일, 169만원-제한절 연휴)
 9/14(월) 나가사키 성지(4일, 169만원-추석 연휴)
 10/12(월)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26(화) 이탈리아 일주 전대사 수여(12일)
 5/31(일) 프랑스 일주12일 575만원(12일)
 8/13(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2일)
 9/7(월)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12일)
 10/12(월) 동유럽 5개국 체독폴오형(12일)
 10/14(수) 프랑스, 이탈리아, 메주고리에(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일본 성지순례

5/18(월) 일본 북해도 성지순례 4일
 5/27(수) 일본 야기다 성모성지순례 4일
 지도 신부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한국외방선교회	4/12(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성심수녀회	4/8(수) 19:30~21:30	역곡성심수녀회 본원	010-5303-1956(문자)

2027 WYD 의정부교구

청년 DMZ 평화의 길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2)

일시 5월 22일(금) ~ 25일(월)

접수일자 2월 26일(목)~4월 30일(목)까지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입금까지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대상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만 18~45세) *하루 20km 도보순례가 가능

인원 선착순 160명

참가비 5만원

접수 QR 코드 참조





진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뽕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 지 / 단 체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대사 미사
일 시: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는 행주 성당에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사순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부활 판공 성사
부활 판공 성사는 사순기간 동안 보시고 성사표를 고백소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3월 월례회의
일 시: 3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하절기 토요일 저녁 미사 시간 변경
동절기 동안 토요일 저녁 5시에 봉헌하던 저녁 미사를 하절기 4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저녁 7시로 변경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성삼일 전례 안내

4월 2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성목요일 미사,현양제대 수난 감실 조배
4월 3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전례 (성지복구 특별 헌금)
4월 4일 (토) 파스카 성야	오후 8시	부활 성야 미사

*성삼일 동안에는 평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봉헌 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체별 수난 감실 조배 순서

시 간	단 체
22시 - 24시	성가대, 사목회
24시 - 06시	자유로운 시간 (시간이 되시는 분)
06시 - 08시	레지오
08시 - 10시	1구역, 2구역
10시 - 12시	3구역
12시 - 14시	4구역, 5구역

우리들의 정성(3/9 - 3/15)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7건 1,200,000원
주 일 헌 금 935,000원
선교 사제 후원 2차 573,000원

● 감사헌금

송해영 500,000원 김영순 200,000원
익명 90,000원 황은순 10,000원
이동준 200,000원

화답송



(후렴)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